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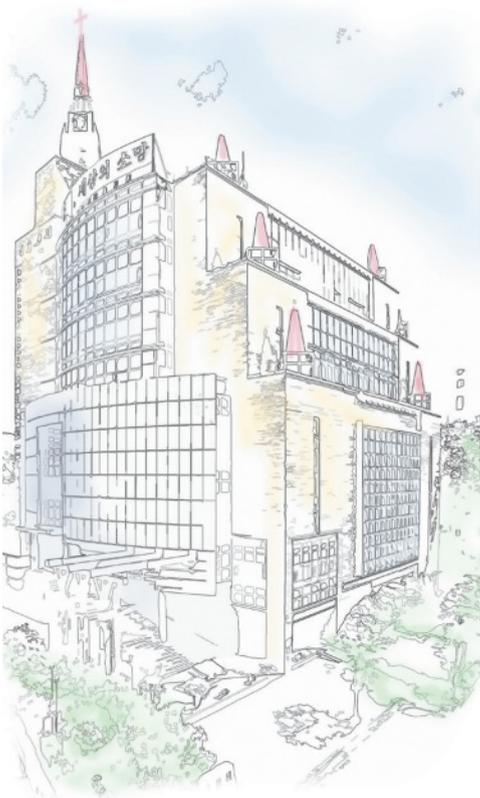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초막절의 논쟁 I

(요 7:11-13)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유대인 군중들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 하나의 인간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가는 그 시대의 매우 중요한 정신적인 지도자였다고도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가는 예수야말로 사회 혁명가요 사회를 개혁한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여러 종류의 대답이 나오는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의 ‘무리’는 헬라어로 ‘오클로이’라고 하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리’란 어떤 일을 결정할만한 지식을 갖지 못한 군중 혹은 다수를 말합니다. 무리는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우왕좌왕하기만 하지 실제적인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을 무리라고 하며 군중 혹은 민중이라고도 합니다. 무리는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과 구별될 뿐 아니라 제자들과도 구별되는 집단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온 사람들도 포함된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의 오류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12절)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선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논증을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막 14:36상)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과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항상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바 아버

지라고 부릅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아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가히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 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2) 에고 에이미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의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하실 때 이와 같은 직설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3) 구약 예언의 성취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

모세가 기록한 책들이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했으니 이 또한 어이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 8:56)고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하니 이 또한 조상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 사죄의 권세를 가진 자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에게 죄를 지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는 죄까지도 용서를 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 나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 유대인들의 머나먼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니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 창으로 찢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예수님을 믿는 도마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중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논증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서울강남노회, 당회 청원 건 모두 허락하다

- 서울교회 분쟁 최종 공식 종료 -

서울교회 분쟁 해결을 위한 총회주관의 합의에 따라 7월 21일(수)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측 사이에 계류되었던 소송이 모두 취하되었고, 서울강남노회도 7월 30일(금) 위 합의 내용대로 당회가 청원한 담임목사 청빙 허락 건과 장로 증원 건 모두를 허락한다는 통보를 하여 왔다.

지난 5월 16일(주) 개최된 제직회에서 손달의 목사를 서울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의결하여 서울강남노회에 청빙 승인 청원을 한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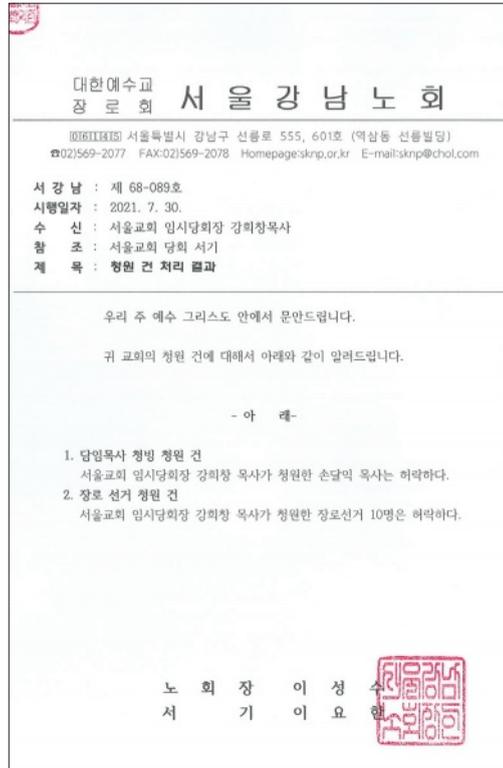
이로써 담임목사 문제로 인해 시작된 서울교회 분쟁은 최종 공식 종료되었다.

이제 청빙된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의 청빙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임시당회장의 임기도 종료되어 이번 8월 정기당회는 손달의 담임목사의 인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2016년 시작된 당회 파행사태 이후 실로 5년여 만에 서울교회 정식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정상적인 당회가 개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노회의 장로 증원 허락에 따라 당회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시무장으로 선출 절차에도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성도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대로 장로 선출을 위한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순차로 개최할 예정이다.

새 담임목사와 함께, 회복된 서울교회의



미래를 힘차게 이끌어 갈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피택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여, 격변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며 오직 희생과 기도로 서울교회를 지키기 위한 모든 과정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서	일정	시간	방식	주제	지도
유년부	8.21(토) - 8.22(주)	주 : 10:30-13:00	토: 온라인 주일: 오전 10:30-13:30 대면/비대면	주제 : 예수, My Wonderful Lord 말씀 : 이사야 9장 6절	조동수 목사
초등부	7.31(토) - 8.1(주) 8.8(주)	10:30-15:30 10:30~12:30	비대면 (Zoom 실시간, 밴드 영상)	주제 : 예수, My Wonderful Lord 말씀 : 이사야 9장 6절	이대원 전도사
중· 고등부 연합	7.26(월) -8.1(주)	월-금: 상시 토 : 13:00-14:30 주 : 09:00-11:00	월~토 : 비대면 (Zoom, 공유형 플 랫폼, 유튜브 생 중계 활용) 주 : 비대면	핵심 말씀 : 로마서 12장 2절메인 주제 : 분별할래? 서브 주제 : 변화되자!	정기성 전도사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8.14(토)	토 : 14:00-21:00	비대면 온라인	주제 : 새롭게 되는 날 (행 3:19) 부제 : 주님 앞에서 얻는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	안용곤 전도사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 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 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반주자 모집

고등부는 반주자를 모집한다.
고등부 예배시간은 주일 오전 9시-10시 20분이며 피아노 전공자로 예배 반주와 대 면 예배 시 고등부 찬양대 연습을 담당하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초등부 교사모집

초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기대 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및 권고 바란 다.

- 이대원 전도사(초등부 교역자)
010-4454-0391
- 김혜연 집사(초등부 부장)
010-3923-9913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 일정** : 2021.6.1 - 2021.10.31
-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최종희 권사)에게 메일로 제출
- 평가 방법**
 - 당회, 스데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최종희, 장상국)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서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현재 선교지 상황

코로나로 어려운 다른 나라들처럼 여기 선교지도 인도 코로나 델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줄어가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남으로 정부에서 전국 봉쇄라는 특단의 조치를 다시 취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한인들과 선교사님들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으며, 한 선교사님 가정은 두 명의 딸과 두 돌 된 아기까지 다섯 명이 함께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백신이 없어 1차 맞은 사람들도 2차 백신을 못 맞고 있고, 정부에서 7월부터 시노팜과 시노백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효과 좋은 백신들이 잘 공급되고, 저희 한인들도 이곳 정부에 백신 신청을 해 봤는데 이곳에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길 기도해 주세요.

2. 인구호스텔

(유치원-대학생, 남자 31명, 여자 15명)

코로나 봉쇄 상황에 학교가 계속 문을 닫아 호스텔의 아이들이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해하고, 스텝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지치지만, 아이들에게 공부와 성경 쓰기, 컴퓨터, 그리고 재봉을 가르치면서 코로나로 생긴 학교의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호스텔에서 사는 마숨이(10학년) 여자 친구와 같이 가출을 해서 동네와 경찰까지 개입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4년 후 결혼시키는 걸로 양가가 합의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숨이 자신은 크리스천이 되었으니 이를 인정해 달라는 각서 겸 편지를 써 여자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상대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마숨 부모

도 다시 무슬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동네에서 매장 당한다고 울며 회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희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곳의 개종은 가정 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친척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례 받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아이들이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얼마 전 라마단 방학을 맞아해 빈민가의 집으로 돌아갔던 8학년 여자아이가 동네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집에 보낼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게 교육을 시켜 보내지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집 상황이 안 좋은 여자아이들은 방학이라도 집에 안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을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 호스텔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성경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가정과 친척과 지역마다 있는 모스크로 묶여있는 사회의 장벽을 뛰어넘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저와 스텝들 위해(노00 목사님, 슈00 선생님, 리00 선생님, 데00, 요리사 풀00),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이들과의 관계와 모든 영역에서 지지 않고 잘 감당하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3. 0000 지역 사역 (인구학교, 공부방 59명)

정부의 명령으로 학교 문을 닫았음에도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오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락다운으로 학교를 또 닫았습니다. 1주 후부터는 선생님들이 교안 작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수업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복 있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4. 구제 사역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곳을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 헌금을 보내주신 분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가난한 이웃들을 사역지와 현지 교회를 통해 약 170가정에 쌀과 기름 등 귀한 나눔을 가질 수 있어서 도우신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얼마 동안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번에는 기도 편지를 길게 보냅니다. 그래도 꼭 읽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드리하는 것은 제가 코로나에 걸려 아팠던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우셨던 교회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회복되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와 사랑으로 도우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같이 하시길 이곳에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저와 사모의 아이들이 올립니다.

* 선교사님의 신변보호를 위해 사진의 얼굴과 지명, 성명 등을 비공개합니다.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순례자 주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1.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2. 기간 : 1월 10일(주)-10월 31일(주)
3.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4. 결과 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5.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6.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믿음상 각 1명
장려상 (참여 인원내 맞게 변동)
7. 응모 내용
 - ①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새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 ②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울교회

입니다. 교회 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 인터넷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8. 응모 방법 :
 - ① 흑백, 컬러 모두 가능
 - ②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 ③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④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화질로 전송
 - ⑤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 ⑥ 제출 시 반드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9.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예) 제목 : 어둠을 밝히는 서울교회
촬영자 : 오윤걸 집사

예) 제목 : 2021 첫 당회를 마치고 만난 눈빛한 돌성경
촬영자 : 최형렬 장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2일	월	사 48-53		수 15-19	
8월3일	화	사 54-57		수 20-24, 삿 1-3	
8월4일	수	사 58-61		삿 4-8	
8월5일	목	사 62-66		삿 9-14	
8월6일	금	렘 1-4		삿 15-21	
8월7일	토	렘 5:1-7:29		룻 1-4, 삼상 1-3	
8월8일	주일	렘 7:30-12:17		삼상 4-11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교육 방학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1차 교육이 지난 주 손달익 목사의 '직분과 리더십'을 끝으로 방학을 하였다. 다음 2차 교육은 9월 5일(주일) 전재홍 목사의 '직분자의 영성'으로 다시 시작한다.

방학 기간 중에 교육에 관해서는 피택집사 연락처 : 장석남 목사 010-7273-6352
피택권사 연락처 : 박미라 전도사 010-4200-4656로 연락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김은호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8. 5일(목) 여호수아회 조찬기도회에서 성경강해를 한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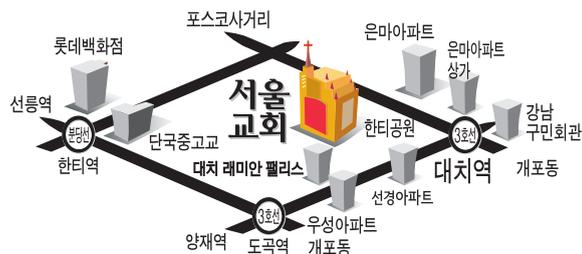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비대면 실시간 중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공예배에 힘써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방학 중에도 기도에 힘쓰며 잘 준비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 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